

#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과 지리교육의 방향

조 철 기\*

##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caliz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Geography Education

Cho, Chul-Ki\*

**요약**: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찾고, 이것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 것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시민성은 국가가 영역 내의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로 정의되었다. 물론 현재도 국가가 법적인 시민성을 부여하지만, 점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상하위 스케일인 글로벌과 로컬로부터 획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시민성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다른 사람 및 장소와의 연결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공간은 본질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시민성은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이고, 초국적이며, 협상적인 경향을 띠면서, 다중스케일에 기반한 다중시민성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비영역적인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리를 통한 시민성교육은 국가 중심에서 그리고 분절된 공간적 스케일에서 벗어나, 로컬과 글로벌이 상호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다중시민성을 포섭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요어**: 글로벌, 연결과 네트워크, 비영역적, 다중스케일, 다중시민성

**Abstract**: This study is to try to find citizenship needed in the age of glocaliz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geography education. With formation of nation-state after modern, the rights and duties are applied to members of a state in a given territory. But Although states grant de jure citizenship, identity as a citizen is increasingly seen as something that is gained beyond and below the state. Citizenship might be conceived as relational rather than absolute, something that is constituted by its connections or network with different people and places rather than something defined by the borders of the nation-state. New space of citizenship has multiple dimension, and is fluid, mobile, multidimensional, transnational, negotiative. Citizenship operates in an increasingly complex web of overlapping spaces, and is reconceptualized as multiple citizenship based on multiscale. Citizenship should now be thought of as multi-level, reflecting individuals simultaneous membership of political communities at a variety of spatial scales and perhaps of non-territorial social groups. Thus,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geography should focus more on interconnected and layered multiple citizenship than bounded national citizenship.

**Key Words**: glocalization, connection and network, non-territorial, multiscale, multiple citizenship

### 1. 머리말

시민성 또는 시민권으로 번역되는 citizenship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동시에 가치덕목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길 원하며,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교의 모든 교과들은 대개 본질적/내재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사회과는 교육목적을 민주시민 육성에 두

고 있기 때문에, 시민성과 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의 한 영역을 이루는 지리 역시 영역특정의 지식, 기능, 가치의 전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과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다른 견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학문 영역이든 교과 영역이든 여전히 지리(학)는 시민성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Yarwood(2014)는 시민성이 지리학의 매우 유용한 개념 또는 가치덕목이지만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지리학이 시민성에 대해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kcho@knu.ac.kr)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단적인 사례를 통해, 그 동안 지리학이 시민성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리학 연구의 경우 시민성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sup>1)</sup>. 반면 국내외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시민성에 대한 연구(조철기, 2005; 조철기, 2013; 노혜정, 2008; 박선희, 2009; 한희경, 2011; Anderson, *et al.*, 2008; Butt, 2001; Ferreira, 2002; Lambert, 2002; Lambert and Machon, 2001; Machon, 1998; Machon, and Walkington, 2000; Stea, 2002; Tilbury, 2002 등)가 모험문인 지리학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지리 교과와의 외재적 목적으로서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현대 지리학과 지리교육에 있어서 시민성은 중요한 키워드이다. 문제는 지리교육에서 이러한 시민성에 대한 진진한 성찰없이 사회와 교육 과정에 제시된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예 배척한다는 것이다. 시민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인 개념인 동시에(Lambert and Machon, 2001; Anderson *et al.*, 2008),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Mullard,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시민성에 대한 진진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민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지리교육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시민성과 공간 그리고 스케일의 관계

시민성은 전통적으로 개인, 집단, 국가와 같은 공간적 단위를 가진 정치적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Smith, 2000). 즉 시민성은 보통 국가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에서 개별 구성원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로, 특정 의무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와 특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mith, 2000, 83; Chouinard, 2009, 107). 시민성이 지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

민성은 사람들이 공간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대한 계속적이고 불안정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리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지리는 공간 패턴과 프로세스 그리고 원리뿐만 아니라, 공간 내 그리고 공간을 가로지르는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공간과 장소는 시민성의 형성과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Desforges *et al.*, 2005; Staeheli, 2011). 뿐만 아니라 지리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지리는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시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한다(Anderson *et al.*, 2008). 특히 지리는 시민성이 어떤 공간과 스케일에서 구성되고, 경험되며, 수행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지리는 기본적으로 로컬 국가, 글로벌이라는 다중적 공간 스케일의 관점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다중적 공간 스케일에 대한 지리적 관심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등한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개인이 시민이 되는 과정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며,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민성에 대한 정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성은 항상 공간과 장소와 연결된다. 사람들은 주권을 가진 한 시민으로서 행동하지만, 이러한 주권은 항상 장소를 통해 규정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와 연결된다(Lepofsky and Fraser, 2003, 130). 따라서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성은 공간의 관점에서 대개 로컬 시민성, 국가 시민성, 글로벌 시민성으로 구분된다. 서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의 영역화는 도시국가(city-state)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로 이동하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성은 도시국가의 영역에 한정되었다(Painter and Philo, 1995). 그리하여 시민성은 특정 도시국가에 한정되었으며, 다른 도시국가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 서구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시민성의 개념은 유럽에서 사라졌다.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시민 대신에 봉건적이고 종교적인 질서에 종속되었다. 서구의 시민성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하여(Burchell, 2002), 프랑스혁명과 19세기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시민성은 로컬적 단위에서 점차 국가적 단위로 재스케일화되었다.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성의 개념은 유럽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Isin, 2002; McEwan, 2005; Ho, 2008; Isin, 2012). 유럽의 제국주의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을 식민화하면서, 유럽의 국가적 시민성 모형을 다른 장소에 이식하였다. 서구의 국가적 시민성 모형은 다른 국가들의 기존의 시민성을 무시하거나 탄압했다.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의 영토에 기반하여 정치적, 법적 구조와 제도를 통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Janoski and Gran, 2002, 13).

시민성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지만(Painter and Philo, 1995), 오늘날도 여전히 국민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국가는 시민성에 관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기구를 제공한다(Isin and Turner, 2007; Isin, 2012). 그러나, 세계화 등으로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력이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국가가 시민성의 실제적인 기초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assen, 2002). 경계화된 시민성은 경제적/문화적 세계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Closs Stephens and Squire, 2012a). 즉 시민성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중첩되어 다중적 시민성의 공간이 출현하고 있다.

탈국가적 시민성은 국가가 시민을 위한 유일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국가적 시민성은 공식적 권리가 한 국가의 시민들에게 다른 국가나 초국가에 의해 어떻게 수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초국적 및 이중적 시민성, 디아스포라 및 코스모폴리탄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시민성의 형성에 있어서 글로벌 연계를 강조한다.

한편, 탈국가적 시민성은 국가 아래의 스케일이 시민성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국가 위아래 스케일로 탈국가적 시민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스케일

은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장소들 간의 상호연결을 추적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지리학에서는 시민성 및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관계적/다중스케일적 본질에 대해 강조한다.

### 3. 세계화와 지역화, 시민성의 관계적 전환

#### 1) 세계화와 초국적 이주 그리고 시민성

모든 세계는 이동 중에 있는 것 같다. 망명 신청자, 국제 유학생, 테러리스터, 디아스포라, 여행자, 사업가, 스포츠 스타, 난민, 배낭여행자, 통근자, 은퇴자, 출세욕에 찬 젊은 전문직 종사자, 매춘부 등등(중략) 이러한 여행의 스케일은 거대하다. 국제적으로 매년 7억 명의 여행객(1950년의 2천5백만과 비교되는)이 있으며, 2010년 경에는 1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 4백만 명의 여행객이 항공을 이용한다. 3천 1백만 명의 난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 8.6명 당 한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Sheller and Urry, 2006, 2007).

대부분 시민성은 출생을 통해 획득되며, 한 국가의 시민은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할 때 여권 또는 비자를 제시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지위를 떠올리게 된다(Cresswell, 2006). 이러한 행위 이외에, 시민성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모국에서의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Pykett *et al.*, 2010).

그러나 국가를 횡단하여 이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을 위한 이주자, 난민 등에게 시민성은 획득되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Alexander and Klumsemeyer, 2000). 시민으로서의 지위는 이러한 다양한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주는 또한 시민성이 규정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Ho, 2008). 자국으로 많은 이주자들이 유입해 오는 국가들은 견고한 보안을 통해 이주자들을 더욱 더 통제하려고 한다. 이는 이주를 제약하고 시민성을 획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이루어진다(Castles and Davidson, 2000).

이처럼 시민성은 국가 경계 내에 고정되고 한정

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이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용이해짐에 따라(Sheller and Urry, 2006), 시민성은 상호연결된 세계 속에서 열린 시민성으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Massey, 1991).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히 국가적 소속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상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로컬 및 글로벌 영향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세계화로 시민성은 하나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다.

시민성은 공간 사이를 계속해서 이동하며, 국경을 포함한 경계를 가로지른다. 시민성은 특정 경계 또는 공간적 컨테이너 속에 한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중스케일적이며(Paintner, 2002), 이동한다(Cresswell, 2006, 2009). 경계화된 국가 시민성에 도전하는 초국가주의는 국가 경계를 횡단하는 ‘초국적 시민성(transnational citizenship)’의 실천과 관련된다. 이러한 초국적 시민성은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 또는 ‘코스모폴리탄 시민성(cosmopolitan citizenship)’이라 불리기도 한다(Desforges *et al.*, 2005, 444).

세계화로 인하여 사람, 노동, 상품, 정보, 자본, 노동이 국가를 횡단하여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가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소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일련의 학자들은 시민성을 국가의 경계에 의한 포섭과 배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민성이 경계를 넘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한 국가 이상의 권리와 정체성과 관련된 초국적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다(Linklater, 2002; Chouinard, 2009). 이러한 초국적 시민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국가적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을 끌어오는 훨씬 더 넓은 정체성(젠더, 연령, 성별, 민족성, 인종, 관심, 신념 또는 정치학과 같은)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성이 국민국가에 고정된 정체성에 근거한다는 가정에 도전한다(Jackson, 2010). 예를 들면, 시민들은 자원봉사자로서 로컬 수준에서 행동하는 동시에, 국제적 캠페인을 통해 다른 공간에 있는 다른 시민들과 연결된다.

비록 국가는 국민에게 법적인 시민성을 부여하지만,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국가를 횡단한다. Miller(2002,

242)에 의하면, 시민성은 더 이상 지연 또는 혈연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성을 양산한다. 또한 Jackson(2010, 139)은 시민성이 엄격한 법적, 정치적 양상보다 감성적 또는 정의적 차원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자가 국가 정체성이라면, 후자는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지칭한다. 특히 후자는 유동적이고 초국적인 정체성으로 글로벌 장소감에 근거한 보다 넓은 지리적 상상력과 관련된다. Ho(2008)에 의하면, 많은 이주자들은 이주한 새로운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국민국가 간의 초국적인 사회적, 경제적 연계를 유지한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한 한층 자유로워진 이동 메커니즘은 시민성을 재개념화한다. Cresswell(2006)에 의하면, 이동은 시민성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민성을 규정한다. 장소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장소 내에서 보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시민이 되는 특징을 규정한다(Marshall, 1950[1992]; Cresswell, 2009). 이동에 관한 제약은 시민성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제약과 연계된다. 따라서 이동과 시민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 이동의 증가는 국민국가에 기반한 국가 시민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민성을 출현시킨다.

국가가 시민성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민성은 논리적 일관성에 의하기 보다는 그 국가 놓여있는 역사적 경험, 기존의 문화적 규범, 정치적 계산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lexander and Klumsemeyer, 2000, 2). 세계화로 인한 이동에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Sheller and Urry, 2006; Adey, 2010; Cresswell, 2010)은 국가 경계에 뿌리내린 정적인 지리보다 장소 간, 그리고 스케일 간의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동 메커니즘은 시민성을 국가 경계를 넘어 확장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아스포라 공동체이며, 이들은 이중 시민성(dual citizenship)<sup>2)</sup>을 경험하고 있다(Sassen, 2002). Escobar(2006)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시민성을 ‘법역 외 시민성(extraterritorial citizenship)’이라고 말하며, 이는 이중 국적에 해당된다. 이러한 법역 외 시민성은 세계화로부터 야기하는 다중시민성(또는 다중정체성)으로 연결된다. Closs Stephens

and Squire(2012b)는 시민성을 영역적 단위를 초과하는 일련의 정치적 만남으로 묘사함으로써, 공동체 없는 시민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웹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이미 규정된 정체성, 영역, 정치적 주체들로부터 이동하는 시민성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주장한다. Desforges *et al.*(2005, 441)은 이를 다층적 시민성 또는 다중시민성(multiple citizenship)<sup>3)</sup>이라고 명명한다. 다중시민성은 상이한 스케일의 정치적 단위와의 관계, 일련의 다른 사회적 정체성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표현된다.

이상과 같이 시민성은 국가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한 비국가 부문(예를 들면, 자선단체, NGO, 기업, EU 등)을 통하여 조직되고 국가 부문과 경쟁한다(Anderson *et al.*, 2008). 왜냐하면 사적이고 자발적인 비국가 부문이 점점 복지와 서비스 영역에서 국가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영화, 자발적 행동, 새로운 거버넌스는 책임성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시민성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시민성은 일련의 공간과 스케일을 가로질러 수행된다. 이제 국민국가에 근거한 시민성은 더 이상 표준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시민성에 대한 관점 역시 변화하고 있다. 탈산업화, 국제적 이주, 세계화 등은 보다 열린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 국제적인 안보, 국제적인 인권 등은 국민국가가 혼자 힘으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시민성은 유럽연합, WTO, NATO,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적인 공동체를 비롯하여 그린피스, Oxfam, ActionAid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탈국가화된다.

## 2) 지역화와 로컬리티 그리고 시민성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적 단위를 로컬리티(locality)라고 한다. 이러한 로컬 지역 역시 시민성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 로컬리티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으로서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다. 이러한 로컬리티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로컬 시민성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로컬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sup>4)</sup>으로 간주된다(Kearns, 199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동은 시민성을 위한 중요한 기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성은 로컬리티 또는 로컬 공동체와 동일시된다. 비록 국민국가는 시민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가 확립되는 곳이지만, 대개 로컬리티를 통해 수평적인 시민성의 결속이 ‘우리’라는 동일시를 창출하는데 작동한다. 시민성은 로컬 수준에서의 일상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다. Ghose(2005, 64)에 의하면,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동원하고, 사용할 완전한 시민성을 획득한다. 국가 스케일 아래의 로컬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Desforges *et al.*, 2005). 예를 들면 지역 계획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지역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지역 의원과의 접촉하여 지역 선거 및 정치에 참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토크빌(Alex de Tocqueville)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2003[1835-40])에서 로컬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참여는 더욱 더 효율적이고, 중앙 국가와 대규모 관료조직에 의한 통제보다 민주적으로 더 선호된다고 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로컬 스케일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에 능동적 시민성은 중요하다. 능동적 시민성은 권리보다 오히려 의무를 강조한다. 능동적 시민성은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복지나 서비스의 한계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메우려고 한다. 능동적 시민성은 시민들에게 로컬 공동체에서 시민의 의무, 자선활동, 자발적 조직(NGO, 자선단체 등)에의 참여 등을 강조한다. 국가와 자발적 부문은 사회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다. 자발적인 활동은 로컬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주로 좌파에 의해 실행되었지만(Wolch, 1990), 이제 많은 국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로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격려한다.

이처럼 로컬 시민성의 성장으로 국가의 직접적

인 개입은 줄어들었는지 몰라도, 국가는 여전히 먼 거리에서 로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발적 활동은 자율적인 시민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Painter(2007, 222)에 의하면, 국가와 관련하여 시민성은 시민들에 의해 행해진 실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지배성(governmentality)에 의한 산물이다. 국가는 모든 수단, 예를 들면, 교육, 감시, 사법시스템, 도시 및 사회 정책 등을 통해 시민을 재생산한다.

로컬에 기반한 시민성은 능동적 실천을 담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로컬 시민성은 사람들을 포섭할 뿐만 아니라 배제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taeli, 2008; Closs Stephens and Squire, 2012b). 일부 사람들은 로컬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한 시민성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는 다양한 스케일을 통한 상이한 시민성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상상적인 공동체인 국가에 봉사하는 국가 시민성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주민 또는 시민으로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능동적 시민성 형성에 관여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횡단하여 보편적 시민성으로서의 글로벌 시민성이 역시 요구된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다중적인 시민성 또는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 3) 공간적 네트워크와 시민성의 관계적 전환

지금까지 국가 시민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글로벌에서 로컬로 공간 규모를 옮겨가며 시민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로컬에 기반한 능동적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을 추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도전한다(Routledge, 2003). 로컬적 저항 또는 행동은 국가 스케일 또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로컬적 행동은 초국적 또는 초로컬적 네트워크(transnational or translocal networks)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Routledge *et al.*, 2007). 예를 들면, 공정무역 네트워크는 생산자와 멀리 떨어진 곳의 소비자를 상호연결한다.

공간적 네트워크로서의 시민성은 ‘활동주의(activism)’

와 관련된다(Yarwood, 2014). 활동주의는 3가지 이유로 시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첫째, 활동주의는 시민성의 불균등한 영역을 끌어온다. 둘째, 활동주의는 시민성의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 캠페인, 원조,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같은 글로벌 운동은 국가적 경계를 횡단하여 글로벌 수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활동주의는 국민국가에 기반한 전통적 시민성에 도전하는 글로벌 시민성 또는 코스모폴리탄 시민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글로벌 시민성 또는 코스모폴리탄 시민성은 상이한 공간과 경계를 연결하고 횡단하는 네트워크로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의는 권력의 본질과 변혁적인 행동을 할 시민의 능력에 관해 질문한다.

시민에 의한 로컬적 행동은 로컬리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로컬적 쟁점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개발, 서비스의 제한, 문화적 세계화, 환경파괴, 어메니티의 손실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시민의 행동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저항, 데모, 법 테두리 안팎에서의 직접적 행동에 이른다. 이러한 로컬적 행동은 로컬 스케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 최근 일부 시민들은 로컬적인 넘비 현상보다 글로벌 변화의 영향에 대한 저항에 더 관심을 가진다(Cresswell, 1996). 이러한 행동은 본질적으로 초국적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다양한 로컬리티의 시민들이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집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hagram *et al.*(2002)는 초국적 행동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것은 초국적 주창활동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초국적 연합(transnational coalitions), 초국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이다.

먼저, ‘주창활동 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삶의 방식에 관해 개인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Khagram *et al.*, 2002). 이러한 주창활동 네트워크는 세계를 횡단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포럼과 사회적 미디어와 병행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초국적 연합’은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가를 횡단하여 공적인 합의와 조직화된 행동을 수반한다. 초국적 연합은 공정무역 및 윤리적 소비와 같은 소비실천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관철시킨다. 이러한 소비의 실천은 로컬 공간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하도록 한다(Crewe, 2000)<sup>5)</sup>. 윤리적 소비는 로컬 자원봉사자 또는 소비자들을 원조 단체, 비정부기구와 서로 얽히게 함으로써 로컬 공간을 넘어 확장한다. 이러한 초국적 연합은 시민성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 소속감, 책임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Desforges *et al.*, 2005, 442).

초국적 연합을 통한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비판론자들은 윤리적 소비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단순히 ‘그린워시(greenwash)’<sup>6)</sup>라고 주장한다(Goodman *et al.*, 2010). Hartwick(1998, 443)은 윤리적 캠페인은 대중적 투쟁 또는 기껏해야 중산층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윤리적 소비는 그러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소비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의 인구가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마지막은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이는 1960년대에 글로벌적으로 착취적이고 불평등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응하여 출현했다. 새로운 초국적 사회운동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또는 임금개선에 초점을 둔다. 초국적 사회운동은 부유한 선진국보다는 부와 권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 다국적기업과 같은 초국적 조직들을 겨냥한다. 이러한 초국적 사회운동은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직접 행동, 저항, 압력 등을 사용한다.

#### 4.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이 갖는 지리교육적 함의

지금까지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일명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의 지리(geographies of citizenship)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라 시민성은 탈경계화되면서 글로벌 시민성, 초국적 시민성, 코스모폴리탄 시민성, 다중(다차원)시민성, 이중시민성 등의 개념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세계화는 지역화를 배제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로컬리티에 기반한 로컬 시민성 또한 중요해진다. 특히 로컬 시민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공간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스케일과 만나게 된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전되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시민성은 더 이상 사람들을 국민국가와의 관계로 한정하여 재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근대적 관점에서의 시민성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시민성의 정의는 국민국가라는 우세한 하나로 수렴될 수는 없다.

이러한 시민성의 정의와 유형이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리는 혼란스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시민성의 개념을 가치있게 만든다. 젠더화되고 서구화된 시민성의 관점에서 탈피하여(McEwan, 2005), 그리고 국가 중심의 시민성에서 탈피하여 스케일의 관점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위아래를 볼 수 있고, 남성과 서구를 중심으로 여성과 비서구를 안을 수 있는 개념으로 시민성은 확장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성은 공간적으로 파편화되고 분절된 시민성이 아니라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로 구축되는 관계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글로벌 시민성, 초국가적 시민성, 코스모폴리탄 시민성, 다중시민성, 이중시민성 등의 출현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Isin, 2012). 시민성에 대한 공간적 관점은 이러한 새롭게 출현하는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지리는 공간성(spatiality)에 대한 이론화를 추구하며, 이는 공간과 장소가 시민성을 형성하고 실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준다(Desforges *et al.*, 2005). 지리는 로컬에서 글로벌에 이르는 공간뿐만 아니라, 몸, 집, 지역, 영역, 경관, 로컬리티, 사이트, 이동, 네트워크, 그리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아우른다. 이들 공간은 모두 시민성이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재생산되는 방법과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공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관계적이

라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는 시민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 내리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공간 스케일(예를 들면, 로컬, 지역, 국가, 글로벌 등)과, 이들 공간을 횡단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공간 사이를 횡단하거나 엮는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성은 일련의 영역에 파편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네트워크를 따라 분산되고 있다(Lee, 2008, 4).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은 이제 다중스케일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Painter, 2002). Desforges *et al.*(2005, 441) 역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다중스케일적 시민성의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한다<sup>7)</sup>. 이러한 다중스케일적 시민성, 또는 다중시민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성이 국가에 의해 그리고 국가 위아래를 횡단하는 공간, 네트워크, 스케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민성의 지리에 토대하여 지리교육은 시민성의 복잡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교지리는 대개 패턴, 법칙 등 추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학습된다. 그러나 학교지리는 시민성의 지리를 위한 ‘논쟁의 문화(culture of argument)’ 또는 ‘대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conversation)’을 만들어야 한다(Lambert, 2002).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면 국제적 경계를 초월한 초국가적 이동이 가능하다. 지리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성이 어떻게 사회적/공간적 포섭과 배제의 강력한 수단인지를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성에 대한 토론은 필연적으로 사회정의와 관련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성이라는 토픽에 대한 토론은 지리수업을 정치적 토론으로 이끌 수 있다. 이는 지리학습에서 강조되는 반성, 대화, 협상, 참가 등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지리수업을 ‘논쟁의 문화’ 또는 ‘대화를 위한 교육’으로 특징짓는다. 학생들은 회의주의에 친근함을 느끼고, 복잡성에 대한 주의깊은 접근을 하도록 격려

받는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에게 불확실한 세계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계화된 영역에 기반한 국가시민성에 대한 대안적 지리적 상상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그들의 장소는 일련의 영역에서 중심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복잡한 네트워크를 따라 탈중심화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안적 지리적 상상력은 관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형성된 시민성의 개념을 밝혀준다. 그것은 지리적 공간의 개방적인 관계적 본질을 인식시킨다. 이는 국민국가 영역에 근거한 국가 시민성에서 탈피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및 장소와 관련하여 위치시키도록 할 수 있는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성교육에 기여한다.

지리교사는 지리를 통해 이러한 초국가적 시민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탈산업화, 국제적 이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1세기에 탈국가화된 시민성 지리는 지리교사들로 하여금 대안적인 지리적 상상력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항상 생성, 파괴, 변형, 재형성의 과정에 있다. 영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세계를 횡단하는 복잡한 상호연결성은 대안적인 초국가적 시민성의 필요성을 알려주며 지리교수 내에서 이것이 성찰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특정 선수가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 개인의 소속을 누가 결정하는지, 시민성의 특권으로부터 누구 이익을 얻고 누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지, 누가 이상적인 시민으로 간주되는지, 한 국가 이상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 시민성 또는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를 탐색할 수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재개념화되고 있는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의 시민성 개념은 경계화된 영역으로서 국민국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새로운 공간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등으로 국민국가의 권력 및 제도적

들이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적 정체성은 항상 국민국가의 영역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국가가 로컬리즘과 초국주의를 통해 공동화됨으로서 정치적 권력이 차츰 침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국가는 공적, 사적, 자발적 부문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병행하면서 점점 증첩된 복잡한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을 특정 국가와의 연결하는 대신 종교적, 사회적, 성적, 인종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다(Jackson, 2010). 국민국가의 경계보다 더 복잡한 공간,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출현하고 있다(Painter, 2002).

그리하여 이제 시민성은 공간적 관점에서 다중적 차원을 가진다. 단지 시민성의 일부만이 국민국가와 연결될 뿐이다. 이제 국민국가는 시민들을 묶는 여러 제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성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다양한 개인들, 즉 종교적/성적 소수자, 민족적 디아스포라와 같은 비영역적 사회집단을 반영하는 다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시민성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시민성은 국민국가의 경계에 의해 규정되는 무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인간과 장소들과의 연결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민성은 고정된 경계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적이며,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다차원적이다.

그렇다고 시민성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민국가는 법적인 시민성의 토대가 되며, 시민성의 형성과 조절에 관여하고 있다. 다만, 공간적 관점에서 시민성을 경계화된 고착적인 관점에서, 상호연결된 네트워크로서 그리고 열린 장소감으로 시민성을 관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리교육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주

- 1) 그나마 영미권의 경우 시민성의 공간과 관련한 특집

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들이 출간되었다(Smith, 1989; Philo, 1993; Painter and Philo, 1995; Goodwin, 1999; Painter, 2002; Cresswell, 2009). 그리고 다수의 지리학 단행본에서 시민성의 개념과 이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예를 들면, Anderson, 2009; Knox and Pinch, 2009; Samers, 2010; Yarwood, 2014). 이들 연구는 주로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문화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2) 이중/다원적 시민성(dual/plural citizenship)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시민성의 권리를 유지하거나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중·복수 국적이라고도 한다. 이는 출생지주의, 혈통주의 또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과의 결혼에 의한 시민성의 획득 또는 부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세계의 약 절반의 국가가 이중국적 또는 이중시민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 국적에 의한 다중시민성은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3) 다층적/중층적/다중적 시민성(multilevel/layered/multiple citizenship)이란 시민들은 동시에 상이한 공간 스케일(예를 들면, 로컬, 지역, 국가, 글로벌 등)에서 작동하는 상이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본다. 이것은 또한 시민들은 상이한 사회집단(예를 들면, 젠더, 민족적 정체성 등에 근거한)의 다중적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유연한 시민성(flexible citizenship)'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것은 로컬에서부터 글로벌에 이르는 공간에 걸쳐 있는 '다중스케일'의 권리와 책임성으로 이어진다.
- 4) 능동적 시민성은 시민성이 수동적으로 수용되기보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가 권리보다 강조되며, 사람들은 로컬 정부 주도의 자발적 활동에 참여한다. '공적' 시민 그리고 '공동체주의' 시민이라고도 한다(Yarwood, 2014).
- 5) 사실 여기서는 시민과 소비자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시민과 소비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시민은 시민성이라는 덕목에 의해 어떤 사회적, 정치적, 공민적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소비자는 단지 그들에게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경제적 관계만을 가진다(Parker, 1999). 따라서 소비자는 시민과 다르다. 만약 소비자는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거래를 포기하고 다른 공급자를 찾는다. 반면 시민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보통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개선을 위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연합한다. 그러나, 시민과 소비자의 구분은 흐릿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국가들은 국가 서비스를 사적 부문과 자발적 연합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시민들에게 최선의 거래를 추구하는 소비자로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 6)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자연, 녹색, 지구 등의 광고 카피를 내세워 환경 친화적임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많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때문이다.

## 문헌

- 하지만 기업들의 이런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 실제로 환경보존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기업이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환경보호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그린워시(Greenwash)’라고 한다. 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걸치레를 의미하는 화이트워시(Whitewash)를 합친 말이다. 1986년 미국의 환경학자인 제이 웨스터벨드(Jay Westerveld)가 한 호텔이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수건을 재사용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이 호텔이 비용절감 조치를 환경보호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그린워시 기업을 선정·발표한다.
- 7) 우리는 다중시민성을 통해 종종 질서/경계의 접촉면에 놓이게 된다. 다중시민성을 통해 상이한 애착과 연계가 작동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한계 지점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한 Ash(2005)는 우리의 지리적·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점점 더 ‘야누스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정체성에는 마치 로마의 신, 야누스처럼 두 ‘얼굴’이 있고, 그 얼굴들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경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위치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야누스의 딜레마가 가진 모순과 긴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바우만은 우리의 야누스적 위치성에 걸맞는 방식으로 삶을 재질서화/경계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책무’라고 주장한다(Bauman, 2002: XV). 시민성은 더 이상 의도적으로 특정 스케일로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의 안과 밖이, 공간적으로 점점 더 역동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 행위자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Amin, 2004, 33). 다시 말해, 시민성은 지리적 질서/경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로지르는 전복하는 문화적 상상물에 의해서 정의된다. 시민성은 영역적 완전성이 담보될 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물질적, 내재적 지리의 일시적 배치로서, 계속 이동하지만 그 흔적을 남기면서 홀연히 ‘출몰’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확장된 네트워크의 특정한 곳에 놓이게 된 한 시점의 상황으로서, 특정한 장소들을 넘나드는 네트워크상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산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들의 합이 바로 시민성이다. 이러한 시민성에는 미리 규정된 혹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Amin, 2004, 33). 이렇듯 시민성은 ‘문화적 의미로는 다중적이며, 지리적으로는 근접한 것과 먼 것이 함께 중첩되는’ 개념이다(Amin, 2004, 37). 시민성은 우리의 실천과 선택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을, 때로는 독특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융합하는 조합물이다(이영민·이종희, 2013 재인용).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노혜정, 2008,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 지리 교과서 다시 읽기: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 속의 한국, *대한지리학회지*, 43(1), 154-169.
- 박선희, 2009, 다문화사회에서 세계시민성과 지역 정체성의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 15(4), 478-493.
- 조철기, 2005,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 교육의 내재적 정당화, *대한지리학회지*, 40(4), 454-472.
- 조철기, 2013, 글로벌 시민성교육과 지리교육과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162-180.
- 한희경, 2011, 비판적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지리 내용의 재구성 방안-사교의 매개로서 ‘경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사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23-141.
- Adey, P., 2010, *Mobility*, Routledge, London.
- Alexander, A. and Klumsemeyer, D., 2000, *From Migrants to Citizens: Membership of a Changing World*,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 Anderson, J., 2009,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Rpotledge(존 앤더슨 지음, 이영민·이종희 옮김, 2013, 문화, 장소, 흔적, 한울).
- Anderson, J., Askins, K., Cook, I., Desforges, L., Evans, J., Fannin, M., Fuller, D., Griffiths, H., Lambert, D., Lee, R., MacLeavy, J., Mayblin, L., Morgan, J., Payne, B., Pykett, J., Roberts, D. and Skelton, T., 2008, What is geography's contribution to making citizens?, *Geography*, 93(1), 34-39.
- Anderson, K., 1999, Introduction, in Anderson, K. and Gale, F. (eds.), *Cultural Geographies*, 2<sup>nd</sup> edn, Melbourne, Longman, 1-17.
- Barnett, C. and Land, D., 2007, Geographies of generosity: beyond the “moral turn”, *Geoforum*, 38, 1065-1075.
- Burchell, D., 2002, Ancient citizenship and its inheritors, in Isin, E. and Turner, B. (eds.),

-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89–104.
- Butt, G., 2001, Finding its place: Contextualising citizenship within the geography curriculum, in Lambert, D. and Machon, P., (ed.), *Citizenship through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 Falmer, London, 68–84.
- Castles, S. and Davidson, A.,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Macmillan Press, Basingstoke.
- Chouinard, V., 2009, Citizenship, Kitchen, R. and Thrift, N.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Elsevier, 107–112.
- Closs Stephens, A. and Squire, V., 2012a, Citizenship without commun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434–436.
- Closs Stephens, A. and Squire, V., 2012b, Politics through a web: citizenship and community unbounde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551–567.
- Cresswell, T., 1996, *In Place/Out of Place: Geography, Ideology and Transgress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sota.
- Cresswell, T., 2006, *On the Move*, Routledge, London.
- Cresswell, T., 2009, The prosthetic citizen: new geographies of citizenship,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20, 259–273.
- Cresswell, T., 2010, Towards a politics of mobi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 17–31.
- Crewe, L., 2000, Geographies of retailing and consum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 275–290.
- Desforges, L., 2004, The formation of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Britain, *Political Geography*, 23, 549–569.
- Desforges, L., Jones, R. and Woods, M., 2005, New geographies of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9, 439–451.
- Escobar, C., 2006, Migration and citizen rights: the Mexican case, *Citizenship Studies*, 10, 503–522.
- Ferreira, M. M., 2002, Environment and Citizenship: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in Gerber, R. and Williams, M., (ed.),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115–125.
- Ghose, R., 2005, The complexities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Space and Polity*, 9, 61–75.
- Goodman, M., Maye, D. and Holloway, L., 2010, Ethical foodscapes?: premises, promises, and possibil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2, 1782–1796.
- Goodwin, M., 1999, Citizenship and governance, in Cloke, P., Crang, P. and Goodwin, M., (eds.),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Arnold, London, 189–198.
- Hartwick, E., 1998, Geographies of consumption: a community-chain approach,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6, 423–437.
- Ho, E., 2008, Citizenship,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a review and critical interventions, *Geography Compass*, 2, 1286–1300.
- Isin, E. and Turner, B. (eds.), 2002,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 Isin, E. and Turner, B., 2007, Investigating citizenship: an agenda for citizenship studies, *Citizenship Studies*, 11, 5–17.
- Isin, E., 2002, Citizenship after orientalism, in I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117–128.
- Isin, E., 2012, Citizenship after orientalism: an unfinished project, *Citizenship Studies*, 16, 563–572.
- Jackson, P., 2010, Citizenship and the geographies of everyday life, *Geography*, 95, 139–140.
- Janoski, T. and Gran, B., 2002, Political citizenship: foundations of rights, in I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13–52.

- Kearns, A., 1995, Active citizenship and local governance: political and geographical dimensions, *Political Geography*, 14, 155-175.
- Khagram, S., Riker, J. and Sikkink, K., 2002, From Santiago to Seattle: transnational advocacy groups restructuring world politics, in Khagram, S. Riker, J. and Sikkink, K. (eds.), *Restructuring World Politics: Transactional Social Movements, Networks and Norm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23.
- Knox, P. and Pinch, S., 2009,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Routledge(박경환·류연택·정현주·이용균 옮김,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Lambert, D. and Machon, P., 2001, *Citizenship through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 Falmer, London and New York.
- Lambert, D., 2002, Geography and the Informed Citizen, in Gerber, R. and Williams, M., (ed.),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93-103.
- Lee, R., 2008, *Where Are We? Geography, Space and Political Relations, A Short Essay for the GA Citizenship Working Group*, Geographical Association, Sheffield.
- Lepofsky, J. and Fraser, J. C., 2003, Building community citizens: claiming the right to place-making in the city, *Urban Studies*, 40, 127-142.
- Linklater, A., 2002, Cosmopolitan citizenship, in I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317-333.
- Machon, P. and Walkington, H., 2000, Citizenship: the role of geography?, in Kent, A., (ed.), *Reflective Practice in Geography Teaching*, Paul Chapman Publishing, London, 179-191.
- Machon, P., 1998, Citizenship and geographical education, *Teaching Geography*, 23(3), 115-117.
- Marshall, T. H., 1950(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Marshall, T. and Bottomore, T. (eds.),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luto, London, 3-54.
- Massey, D., A global sense of place?, *Marxism Today*, 24-29.
- McEwan, C., 2005, New spaces of citizenship? Rethinking gendered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South Africa, *Political Geography*, 24, 969-991.
- Miller, T., 2002, Cultural Citizenship, in Isin, E. and Turner, B.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London, 231-243.
- Mullard, M., 2004, *The Politics of Globalisation and Polarisation*, Edward Elgar, Cheltenham.
- Painter, J. and Philo, C., 1995, Spaces of citizenship: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14(2), 107-120.
- Painter, J., 2002, Multilevel citizenship, identity and regions in contemporary Europe, in Anderson, J. (ed.), *Transnational Democracy: Political Spaces and Border Crossing*, Routledge, London, 93-110.
- Painter, J., 2007, What kind of citizenship for what kind of community?, *Political Geography*, 26, 221-224.
- Parker, G., 1999, The role of the consumer-citizen in environmental protest in the 1990s', *Space and Polity*, 3, 67-83.
- Philo, C., 1993, Spaces of citizenship, *Area*, 25(2), 194-196.
- Pykett, J., Cloke, P., Barnett, C., Clarke, N. and Malpass, A., 2010, Learning to be global citizens: the rationalities of fair-trade edu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 487-508.
- Routledge, P., 2003, Convergence space: process geographies of grassroots globalization network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8, 333-349.
- Routledge, P., Cumbers, A. and Nativel, C., 2007, Grossrooting network imaginaries: rationality, power and mutual solidarity in global justice networks, *Environment and*

- Planning A*, 39, 2575–2592.
- Samers, M., 2010, *Migration*, Routledge(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옮김, 2013, 이주, 푸른길).
- Sassen, S., 2002, Towards a post-national and denationalised citizenship, in Isin, F. E. and Turner, B. S. (eds.), *Handbook of Citizenship*, Sage, London.
- Sheller, M. and Urry, J.,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207–226.
- Sibley, D., Jackson, P., Atkinson, D. and Washbourne, N.,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I. B. Tauris, New York(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2011, 현대 문화지리학: 주요개념의 비판적 이해, 논형).
- Smith, S. J., 1989, Society, space and citizenship: a human geography for the “new tim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4(2), 144–156.
- Smith, S., 2000, Citizenship, in Johnston, R., Gregory, K., Pratt, G. and Watts, M.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 ed.), Backwell, Oxford, 83–84.
- Staheli, L., 2008, Citizenship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Political Geography*, 27, 5–21.
- Staheli, L., 2011, Political geography: where’s citizenship,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 393–400.
- Stea, D., 2002,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active, critical citizen: another view, in Gerber, R. and Williams, M., (ed.),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169–178.
- Tilbury, D., 2002, Active Citizenship: Empowering People as Cultural Agents Through Geography, in Gerber, R. and Williams, M., (ed.),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oston, 105–113.
- Wolch, J., 1990, *The shadow state: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The Foundation Centre, New York.
- Yarwood, R., 2014, *Citizenship: Key Ideas in Geography*, Routledge, Oxon.
- 교신 : 조철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ckcho@knu.ac.kr, 전화: 053-950-5857)
- Correspondence : Chul-Ki Ch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ckcho@knu.ac.kr, phone: +82-53-950-5857)

(접수: 2015.07.15, 수정: 2015.08.03, 채택: 2015.08.15)